



『친구들』 나누기

루시 스티븐슨 이월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초등학교는 어땠니?
재미있었어요. 『친구들』 잡지도 받았어요!
좋겠네! 이제 집에 갈까?
네!



이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어
준 사사, 오, 고마워요!
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
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?



정말 친절한 일을 했구나.
고마워요.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때 느끼는
행복을 친구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요!
“복음을 나누십시오. 자신만의 모습으로 빛을 들어 올리십시오.”
마커스 비 내쉬 장로, 칠십인 정원회, 『너희의 빛을 들어』, 『리아호나』, 2021년 11월호, 72쪽.

이 이야기는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